

백두의 뉘를 이어 주체조선의 위대한 새 승리 이룩해가리 조국해방 70돐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

【평양 8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당의 명도 빛에 조국해방의 위대한 새 역사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8월 15일을 맞이하였다.

조선의 존엄 빛나는 새로운 표준시간에 맞추어 조국해방의 날을 뜻있게 경축하고있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철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헌없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감지 못하고있다.

15일 저녁 조국해방 70돐을 경축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주체사상탑이 솟아있는 대동강반을 중심으로 김일성광장과 만수대언덕, 육류교 등 시내 곳곳은 걱정과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를 순간을 기다리는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흥성이고있었다.

20시 30분 경축의 축포가 일제히 터져오르며 수도의 밤하늘에 황홀경을 펼쳐놓았다.

해방의 감격과 환희가 삼천리강산에 차넘쳤던 력사의 그날 민족제생의 은인, 철세의 애국자를 우러러 온 겨레가

목청껏 터쳐올린 만세의 함성인양 장엄한 축포성은 하늘땅을 진감하고 수백수천길에 오색찬연한 축포탄들은 신군조선의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명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결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주체의 광휘로운 빛말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인민을 가

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영생축원의 마음을 담아 갖가지 색깔의 불보라, 꽃보라가 신비경을 펼쳐놓았다.

장엄한 불의 세계는 군중들의 가슴마다에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조국과 민족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민족해방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신 줄없는 궁지와 자망, 민족의 대행운을 다시금 새겨주었다.

각양각색의 고풍관들이 터쳐올린 불꽃보라들이 쏟아져내려

천하를 천색만색으로 찬란히 물들이고 무수한 줄속포들이 치솟아오르며 경축의 밤하늘가를 황홀하게 단장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 명도로 온 민족을 일제를 반대하는 애국성전으로 불리우키시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폭발시켜 강대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두의 전설적영웅 백두산 김대장.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번영하며 자위로 굳건한 신군조선의 위용과 세상은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지는 오늘 의 현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신군사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임을 증시하듯 축포의 화광이 주체사상탑의 웅장한 자태를 부각시키며 연방 터져올랐다.

끝없이 펼쳐지는 신비경을 격정속에 바라보며 군중들은 민족이 낳은 가장 결출한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혁명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았다.

하늘땅을 밝게 물들이는 형형색색의 경축의 불보라들이 심취된 군중들과 환희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싶어 사진으로 남기는 청년남녀들, 밤하늘가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구름을 가리키며 너무 좋아 이젤을 몰라라

는 아이들...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흰색의 불꽃기가 터져오르며 누리를 밝게 비치고 갖가지 구슬같은 불꽃들이 대동강물위에 금세 내려앉아 꽃바다를 펼쳐놓았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단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투사들, 죽어도 버리지 않는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를 안고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청춘도 생명의 경축의 불보라들에 심취된 군중들과 환희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싶어 사진으로 남기는 청년남녀들, 밤하늘가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구름을 가리키며 너무 좋아 이젤을 몰라라

약동하는 젊음에 넘쳐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새로운 시대속도를 창조하며 폭풍처럼 내달리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이라면 불꽃기들이 기백있으면서도 담차게 하늘을 케치르고 축포성은 광명한 미래를 부르는 화성이 되어 울려 퍼졌다.

뜻깊은 8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경축의 축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며 위대한 김일성, 김일성조선의 성스러운 년대기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승리와 번영을 이룩해가갈 천만군민의 혁명적신념과 철세의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15일 해방탑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안동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김형룡 조선인민군 특공상장, 공석웅 외무성 부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김동근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에브게니 부슈민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방방평의회 대표단, 알렉산드르 라벤 로씨야방방무력 동부군관구 제1부사령관 겸 참모장을 단장으로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해방탑과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 진정

하는 로씨야방방 국방성 대표단, 알렉산드르 미나예브 주조로씨야방방 련사대리대사,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로씨야인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로씨야방방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해방탑에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덩이에는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조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로씨야방방평의회 대표단, 로씨야방방 국방성 대표단, 주조로씨야방방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해방탑에 진정되었다.

한편 사동구역에 있는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조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로씨야방방평의회 대표단, 로씨야방방 국방성 대표단, 주조로씨야방방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해방탑에 진정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과 인민무력부, 외무성, 대외경제성, 대외문화관광위원회와 조선로씨야방방평의회, 평양시인민위원회, 로씨야방방평의회 대표단, 로씨야방방 국방성 대표단, 주조로씨야방방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이에 앞서 로씨야방방 평의회, 로씨야방방 평의회, 쏘련군 통상, 련사료, 추모탑에 꽃다발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평양시 로씨야방방총영사관 성원들이 청진시에 있는 해방탑과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조국해방 70돐 경축연회 로씨야에서 진행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12일 경축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이고리 모르쿨로브 로씨야외무성 부상과 통일로씨야당, 연방공산당, 자유민주당, 정의의 로씨야당, 평화 및 통일당, 전련평화비핵화공산당, 쏘련공산당, 외무성, 국방성, 원동발전성, 경제발전성, 비상사태성, 운수성, 교육과학성, 문화성, 연방인민군, 로소보로보예스보르드회사, 가즈프롬주식회사, 상공회의소, 파하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21세기 관련학단, 모스크바로병위원회, 로씨야고려인통일연합회를 비롯한 로씨야의 정당, 정부성, 기관, 단체의 인사들이 초대되었다.

김형룡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로씨야외무부 부상은 연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이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우리 나라 도시 및 수공예품들, 우표들을 돌아보았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로씨야방방 국가 주악으로 시작된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외무부 부상은 연설에서 조선해방의 날을 맞으며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쏘련군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의 영웅적위훈을 추억한다고 하면서 조선해방을 위한 전투들에서 희생된 쏘련군 병사들의 묘지들을 성의있게 관리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사의를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늘 로씨야인민과 조선인민은 친선과 협력의 뉴대를 계속 결합시켜나가고있다.

두 나라 인민이 로씨야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로조친선의 해로 선포한것은 매우 커다란 상징적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로조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된다.

두 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의의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커다란 협조정착을 마련하였다.

최근시기 각이한 급에서 진행된 쌍무적인 접촉들은 두 나라 사이의 호상협조를 새롭게 발전시킬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를 최대한 발양하기 위해 조선과의 노력을 일차시킴것이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렸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연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외무상과 브루네이 외무

브루네이 다우알람을 공식 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과 모하메드 불키야흐브루네이 외무 및 무역상의 회담이 12일에 있었다.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

15살미만 국제축구경기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된다

제2차 아리스포르컵 15살미만 국제축구경기대회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다.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중국, 호르바츠카, 남조선의 8개 구락부팀들이 참가한다.

경기들은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싱가포르에 갔던 국가품질 감독위원회 대표단 귀국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규격화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민족규격화단체 책임자들의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리철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품질 감독위원회 대표단이 15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철민 국가품질 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마중하였다.

아이힐란드 동아시아 협회 상임리사 도사 도착

도이힐란드 동아시아 협회 상임리사 티모 프레프코가 1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